

가든백화점, 81명 여성장기근속자 부서이동 될 노리나?

광주가든백화점이 81명의 여성장기근속자를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부서이동시켜 '자연퇴사를 노린 음모'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노조측에 따르면 회사측이 지난 9월29일, "3년이상 근속한 여사원을 순환근무제로 실시하겠다"고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노조에서는 '순환근무의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 홍보하여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장기근속자의 퇴직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기혼 여직원 중 임신중인 사원은 보다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회사측은 조합측의 시정요구는 경영상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며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 등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회사측이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지금까지 장기근속자가 타부서로 부서이동되면 신입사원으로 지위가 하락되고 새로운 업무과와의 고충과 타부서 분위기에 적응해야 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에 시달린다 자연퇴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부서이동은 자연퇴사를 유도하고 있는 점. 둘째, 91년 단체협약 체결시 퇴직금 누진제 및 장기근속

자 수당인상 등 장기근속자 임금이 많이 지출된다는 점. 셋째, 89년부터 이직률이 낮아지고 주부사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 넷째, 3년이상 장기근속자의 대부분이 노조핵심 간부들로서 91년 파업투쟁의

치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가든백화점의 부서이동은 여성사원, 특히 장기근속자, 주부사원 등이 주요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연퇴사를 노리는 성차별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낳고 있다.

고소해 놓고 있다.

특히 이번 부당 부서 이동에 항의하여 노조측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 준법투쟁의 하나로 10월3일을 유급휴일로 결정하고 휴무를 결의하였으나 회사측은 개별적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일방적 통보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노조측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회사측을 고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조측이 이번 부서이동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성차별에 의한 여성사원의 자연퇴사를 유도하는 부서이동이라는 점이다. 작년 매출액 약 5백40억(89년 대비 34.5%신장) 등 그동안 여성장기근속자들이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부사원, 임신중인 직원들을 내쫓기 위해 부서이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유통업체와 여성사업장의 자본측의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노조측은 이번 부서이동이 "성차별을 통한 노무관리의 강화와 장기근속자를 배척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늘어나는 주부사원(장기근속자)을 퇴사시키며 조합원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번 부당부서 이동에 맞서 앞으로 모든 유급휴일을 휴무하고 성차별에 대해 사회여론화시키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차명진기자)

자연퇴사 노린 성차별에 분노

주체인 점. 다섯째, 이번 부서이동 대상이 전부 여성이며 또한 법률 및 단체협약에도 임신중인 주부사원은 더욱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시켜야 함에도 임신중인 사원을 감당하기 힘든 부서로 배

회사측은 지난 임투쟁의 때 대체인무를 시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는가 하면 노조계시판에 공고된 노조공고문을 무단철거하고 임금인상투쟁이 끝난 뒤 노조위원장 및 간부 5명을 업무방해죄로

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등 협박을 하였으며 끝까지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경위서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상 부서이동시 노조측과

기아자동차 해고 노동자인 남진규씨의 풍자만화

